

비 내리는 소리에 섞여 포탄이 날아가는 소리와 산발적으로 울리는 총성이 가득한 서울의 봄은 너무나도 추웠다.

지급받은 **M2** 카빈의 개머리판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던 세민은 몇번이고 군화 끈을 다시 묶었다.

분대장인 명 하사는 그런 그를 불쌍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세민아! 정신차려라! 녀석들 또 온다! 등석아! 중우야! 니들도 그만 돕고 이리 와!”

명하사의 고향에 무너진 건물을 엉폐물로 숨어있는 분대 옆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T-80U**에서 승무원들을 구출하고 있던 오일병과 김일병이 급하게 달려왔다.

탈출한 소련 병사들도 전차에서 **PK**를 떼낸 다음 주변에 나자빠져 죽어있는 김소위와 명상병의 시체를 뒤져 **M16** 소총과 탄창들을 챙겨 바리케이트로 향했다.

88년에 일어난 사태 이후 미군과 소련군 그리고 국군이 위아래로 밀고들어가 통일이 된지도 2년, 봉쇄가 풀리자 처음으로 구 복한 지역 관광을 하겠다며 평양까지 수학여행을 떠났지만.

베를린의 ‘유로프론트’에 이은 베이징의 ‘아시아프론트’ 발발로 급히 퇴각하던 국군에게 현지징집당한 수많은 고등학생들 중 하나이던 이세민 역시 급하게 바리케이트로 달렸다.

“벌써 3주 전이네...”

끝없이 비가 내리고 있는 하늘을 잠깐 올려다본 세민은 잠깐 바리케이드 위로 고개를 내밀어 다가오는 적들을 보았다.

수는 한 40명 쯤, 그들 앞에는 괴상한 이세계군 아니 그들의 말마따나 ‘성전군’의 중전차가 어떠한 엔진소리도 없이 굴러오고 있었다.

200mm는 가뿐하게 넘을 것 같은 거대한 괴물같은 주포, 1차대전 **MK**전차에서나 볼 것 같은 차체 양 옆으로 튀어나온 부포 두 개, 그리고 푸른 빛으로 일렁이는 방어막까지.

자신들 앞에 쌓인 시체산을 보고 천천히 접근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자신을 노리고 대열에서 불꽃이 뿜어지자, 세민은 급하게 머리를 숙였고.

거대한 불덩이들이 연달아 날아와 바리케이드를 두드려댔으나 로마인 가라사데 콘크리트는 최고의 건축자재일지니, 열기가 화끈하게 느껴지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들 무사했다.

“대전차화기! 대전차화기!”

“없어!”

“젠장.”

누군가 중얼거렸다.

지금 명하사의 분대는, 아니 저기 바닥을 굴러다니고 있는 김소위의 소대였던 잔해가 마지막 대전차화기를 20분 전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물러날 수도 없다, 사실 물러나고 싶어도 도망칠 체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아직 강북에 남아있는 서울 시민들을 강남으로 피신시키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그리고 평양까지 진출했던 1사단은 정부와 서울 시민들의 피난을 위해 서울에서 수도사단과 함께 소모되고 있었고 말이다.

한강 남쪽에서 이들을 지휘해야 할 사단 사령부와 포병대는 한 2시간쯤 전에 적 기사단의 텔레포트 강습으로 초토화되었고.

이제는 포병지원도 없이 파편화된 부대들만 소대~중대 단위로 흩뿌려져, 한때는 극동 최고라고도 불리던 서울의 잔해를 바리케이트삼아 버티고 있는 지경이었다.

사실 뭐가 더 남아있는지는 하느님도 모를 것이다, 81근위소총사단과 반도로 후퇴해온 인민해방군 몇개 사단, 그리고 건너온 자위대 몇개 연대도 서울에 남아 이들과 운명을 함께 하기로 했으니 말이다.

지금 이들과 같이 버티고 있던 T-80U 전차가 81 근위소총사단 소속이었다.

“자 애들아 한 번만 더 하자... 우리가 여기에서 5분만 더 끌어주면 수백명이 지나갈 수 있어...”

5분? 지금의 상황에 저 숫자면 5분은 커녕 1분을 버티는 것도 한계지만 명하사는 자기 자신을 속여야 했다.

“명하사님, 그래도 우리 밥값은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철모에 파편자국이 잔뜩 남아있는 윤 이병이 손을 덜덜 떨며 마지막 탄창을 끼웠다.

“그러게나 말이야, 현충원에 우리 이름 하나는 확실히 남겠지.”

대한민국 정부와 현충원이 그때까지 남아있다면 말이야, 턱 끝까지 올라온 현실인식을 억지로 쑤셔넣은 하사가 억지로 시선을 다시 앞으로 돌렸다.

이미 이 소대는 이 바리케이트를 전우삼아 여섯시간째 버티는 중이었다.

“이 새끼들아 니들도 세민이 반만 닮아봐라 하하.”

평양에서, 개성에서, 일산에서, 지금 강북에서도 이 끌려온 소년병만큼이나 잘 싸우는 사람이 없었다.

“저 인간흉기를 어떻게 닮으라는겁니까 하사님, 너무 심하십니다 하하하하하.”

사망예정자들의 만담에 끼지 않고 전사자들의 군화를 벗겨서 군화끈으로 수류탄 여러개를 묶어 집속수류탄을 만들고 있는 세민을 바라보고 남은 소대원들이 일제히 웃었다.

히스테리 가득한 웃음이었지만 이 만국 공통의 언어는 금방 전염되었다.

묵묵히 56식 보총에 마지막 탄창을 물린 중국 인민해방군 최후의 패잔병들도.

문방구에서 털어온 청테이프로 자신들의 64식 소총을 둘둘 둘러쳐서 어떻게든 작동이 가능하게 만든 일본자위대의 대륙원정군도.

극동전선부터 떠밀려와 여기까지 오게 된 소련군 병사들도 피식피식 웃으며 AK 74에 탄창을 끼워넣었다.

다들 남은 탄창은 하나에서 두 개, 기관총에는 탄통 절반도 안 남았은 상황.

총검 끼우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무표정하게, 마치 이 일이 일상이라는 것 처럼 소련제 수류탄과 국군의 수류탄을 결합해 집속수류탄을 완성한 세민은 능숙하게 거리를 계산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이미 10대가 넘는 적의 전차를 통구이로 만들어버린 이 패잔병들은 잠시 시선교환을 하고는, 부비트랩을 확인한 이후 천천히 굴러오기 시작하는 적의 전차의 포구를 응시했다.

“그랜저까지 오면 시작한다 알겠지? 민서랑 윤수는 세민이 엄호하고.”

초조하게 자신의 K1을 다가오는 적병들에게 조준하며 고개를 끄덕인 두 병사를 본 명하사는 철모의 끈을 다시 한번 느슨하게 풀었다.

그래도 저 새끼들은 휘황찬란한 제복을 입고 있었기에, 누가 적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으니까.

정신승리 아니냐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정신승리가 맞았다.

그렇게 잡담을 주고받으면서도 도로를 막고있던 불타오르는 그랜저를 올라탄 중전차가 반대편으로 내려온 그 순간.

그 순간을 노려 포화가 퍼부어진다, 가냘픈 탄막이지만 목표는 단 하나!

타라라라라라라라라!

두 줄기의 예광탄 탄환이 빛의 구슬을 꿰어나가며 적 전차의 방어막에 충돌하며 파편을 온 사방으로 흩뿌려내어 화려한 장면을 연출했다.

무의미한 소모처럼 보이지만, 적의 저 구체형 방어막은 경우에 따라 전함 주포의 직격조차 막아낸다는 점에서 강력한 방어수단이였다.

하지만 연속적으로 그리고 고속으로 날아드는 소구경 탄환들에 몹시 무력한 면을 보였다, 이 사실은 사령부에서도 수도 없이 전파하는 사실이었다.

갑작스러운 기습에 전차병이 당황했는지 주포탑을 여기저기 돌리기만 할 뿐 반격을 하지 못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드가 깜빡이더니 산산히 조각나며 무너졌다.

기관총 하나는 상대의 시야를 방해하기 위해 큐폴라를 노리고, 다른 하나는 전차 옆에서 전진하다가 이쪽으로 사격을 시작하는 적 병사들을 향했다.

기관총 탄막군에 휩쓸린 병사들 십수명이 피를 뿜으며 바닥을 구르는 그 순간.

오늘만 해도 특공으로 전차 세 대를 보내버린 세민이 한 손으로 견착한 카빈을 들고는 엄폐물을 뛰쳐나와 약진하며 난사했다.

내려치는 천둥 속에서 옆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카빈 난사와, 정면에서 쏟아부어지는 기관총 포화에 제압당한 연방군 병사들이 자신의 의무를 망각하고 급하게 반대편으로 숨었다.

제병합동의 붕괴가 일어난다, 기관총을 맞아가면서도 전차의 옆을 지켜줘야 할 보병이 전차 옆을 지키지 못한다면? 특공을 걸어온 상대 보병에게 전차가 격파당한다.

상대도 그걸 설계 과정에서 대비했는지 전차에 수많은 포탑들을 간섭하지 않는 각도로 달아뒀지만, 지금 그 포탑들은 너무 천천히 돌아가고 있는지라 제 역할을 못 하는 상황.

그 멀던 거리가 단 세 걸음만에 거리가 좁혀졌다, 이게 세 걸음에 좁혀질 거리인가?

첼커덕!

그 순간 세민이 마구 방아쇠를 누르던 카빈의 노리쇠가 후퇴전진했다.

이제 무거운 짐덩어리밖에 되지 않는 카빈을 던져버린 세민은 정말 집속수류탄의 중심인 소련제 수류탄의 핀을 뽑았고.

동시에 신관이 점화되는 소리가 정말 크게 들려왔다, 대체 신관이 이렇게 크게 타들어가고 될 정도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말이다.

치이이이이익!

타들어가는 신관, 소련군 아저씨들에게 손짓발짓으로 듣고 경험으로 배운 것들을 모두 다 종합해보면 남은 시간은 5초.

가볍게 몸을 날린 세민은 자신을 향해 돌아가는 측면 포탑의 간섭지대로 들어가 쏟아지는 기관포화를 피해낸 다음 잽싸게 전차 위로 기어올랐다.

운 없이 그 반경 안에 있는 돌격소총 든 전열보병들이 육편으로 찢겨져나가는 동안 그는 자신의 몸놀림에 경악했다.

이게 가능하다고? 오늘만 해도 서너번씩은 경악하는 세민이었지만.

어째서인지, 평소라면 너무 지쳐서 움직이지도 못할 몸이 너무나 빠르고 강력하게 움직인다, 당연하게도 세민은 이게 절대 자신의 신체능력이 아니라는걸 잘 알고 있다.

5분만 달려도 기절하는 저질체력이 어떻게 이 정도로 빠르게 질주한단 말인가?

아무리 카빈이 가볍고 반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 손으로 들고 쏘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정확하게 조준된다고?

그래도 이런 생각은 묻어둔다, 주어진 시간은 짧으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원 장식이랑 장식이 너무 많아서 타고오르기가 정말로 편했에,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 수많은 장식을 경쾌하게 밟고 올라가.

패닉에 걸린 병사들이 마구 쏘는 총알들의 베틀 속에서 철모를 벗어, 아니 걸쇠를 뜯어내어 6.25에도 참가했다던 준위의 말마따나 그대로 바리케이드를 향해 돌아가는 메인 포탑의 틈 사이에 쑥박고.

갑자기 포탑이 돌아가지 않아서 반쯤 열린 큐폴라에서 튀어나오려는 전차장을 그대로 걷어차버렸다.

“어?”

수류탄을 안으로 집어넣고 해치를 발로 밟아 닫아버리려던 세민은 신관이 거의 다 타들어갔을 수류탄'들'을 한 손에 쥐고 몹시 멍청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것도 그럴 것이.

막 큐폴라를 열고 나와 권총을 쏘려고 한, 20살은 넘었을지도 모르겠는 비슷한 나잇대일지도 모르는 여성 전차장의 머리가.

“내가 도대체 뭘...”

반사적으로 걷어차서 당황스럽게 만들려고만 한 세민의 발차기 한 번에 깔끔하게 잘려나가버렸기 때문이었다.

잘려나간 목은 톱톱 튕겨나가 이 황당한 표정에 총을 쏘는 것도 잊어버린 연방군 병사들의 대오 밑으로 떨어져.

눈조차 감지 못한 채 그 힘을 잃지 않고 데굴데굴 굴러가고.

그로부터 0.1초 뒤, 모두 다 타들어간 신관이 폭발을 점화하며.

9개나 뭉쳐진 수류탄이 세민의 손에 들린채 일제히 기폭해 수많은 폭발과 화염을 흩뿌렸다.

“어.... 어?”

열린 큐폴라로 파편과 에너지가 빨려들어가, 수류탄이 내부에서 폭발하지 않았는데도 유폭해서 불을 뿜으며 포탑들이 모두 다 사출되어 불을 뿜는 기막힌 광경을 보여주는 중전차와 함께.

군복이 갈갈이 찢겨나가고 타들어간 상태로 한 20m쯤 튕겨나간 상태로 어이없다는 듯 자신의 손을 올려다보고 있는 세민이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린 것도 알지 못한 채, 아무런 상처조차 없는 자신의 온 몸과 좀 찢겨나간 것 빼고 무사한 군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